월요광장



임몽택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가을이다. 길을 걷다 보면 코스모스·봉숭아·나팔꽃 을 만난다. 모두 이쁘다. 가냘프게 흔들리면서도 우주 라는 이름으로 피는 코스모스, 담장 틈 사이를 비집고 올라와 새치름하게 서 있는 봉숭아, 덩굴을 따라 널리 퍼져나가는 나팔꽃은 모두 단년생 식물이다. 단년생 식물은 발아, 생장, 개화 및 결실을 순차적으로 모두 끝 내고 사멸하는 한해살이다.

들이나 산으로 가면 벌개미취·쑥부쟁이·구절초를 만 난다. 모두 이쁘다. 햇빛이 드는 벌판에서 잘 자란다는 벌개미취, 쑥을 캐러 다니는 대장장이의 딸에서 유래 되었다는 쑥부쟁이, 음력 9월 9일이면 줄기가 아홉 마 디가 된다는 구절초는 모두 다년생 식물이다. 다년생 식물은 겨울을 나고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우거나 잎 을 내는 여러해살이다.

한해살이든 여러해살이든 '꽃의 이쁨'에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평균수명이 60세 전후였 을 때는 유년기에 싹을 틔우고, 청년기에 꽃을 피우고, 장년기에 열매를 맺고, 노년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등 한해살이 꽃처럼 순차적으로 살아도 탈이 없었다. 대 략 20대 초반까지 교육받고, 취업해서 30여 년 정도 일 하다, 은퇴한 후 10여 년 정도 살다 죽으면 됐다.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100세 시대' 운운하는 요즘에는 한해살이 꽃처럼 살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교육은 20대 초반에 끝나지 않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니 똑같은 일을 하면서 30여 년을 버티기도 힘들다. 버틴다 해도 은퇴 후 살날이 살아 온 날만큼 남았으니 우물쭈물하며 보내 기는 아예 난망(難望)이다. 그러기에 낭패를 보지 않 으려면 다년생 꽃처럼 살 수밖에 없다.

매년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려면 평생을 학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변화가 필 요하면 새로운 경력 경로를 설계하거나 창업을 시도하 고, 나이와 상관없이 각종 커뮤니티에 참여해 세대의 벽을 허무는 등 인생의 여러 단계를 조합해서 동시에 넘나들어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퍼레니얼(Perennial)이라 한 다. 퍼레니얼은 원래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단어지만 미국 기업가 지나 펠은 "고정관념을 초월해 서로, 그리 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면서 늘 꽃을 피우는 모든 연령・ 종류·유형의 사람들"을 퍼레니얼이라 불렀다.

글로벌 트렌드의 세계적 전문가 마우로 기엔도 '멀 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퍼레니얼은 "자신 이 태어난 시대가 아니라, 일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 는 방식을 통해 정의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인생 의 단계들이 덜 엄격하게 구분돼 있으면, 공부와 일과 놀이를 평생에 걸쳐 더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고, 사람 들에게 일 이외의 관심 분야에 몰두할 자유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방식의 삶은 더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를 경험하고 경력을 바꿀 기 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는 파도에 방향키를 맡겨야 한 다. 거의 한 세기를 사는 동안 인간은 필연적으로 기술 혁명이나 문화혁명과 같은 거대한 파도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 항해에서 살아남으려 면 그 파도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재창조해 야 한다. 이것이 퍼레니얼로 살아야 하는 이유다.

퍼레니얼로 산다는 것은 '세대(世代)의 경계를 초월 하는 삶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다. 긴 인생을 지치 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젊음에서 쇠퇴로 이어 지는 '선(線)'으로 보지 않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 고, 열매 맺는 일이 반복되는 '원(圓)'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꽃을 피울 순간이 온다고 생 각하면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도, 다가올 것에 대한 두 려움도 줄어들 것이다.

다년생 식물이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 듯 낡은 정체성과 아집(我執)을 벗어던지고 변화를 단 순히 적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고 삶 을 새롭게 발견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퍼레니얼이 된다는 것은 '100세 시대'를 지혜롭게 살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육체는 스스로 세포를 재생하고, 마음은 순수 를 찾아 정진을 계속하고, 영혼은 매번 넘어진 후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하 는 것이 인간 됨의 본질이다.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다. 자신을 갱신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하 고, 삶의 어느 단계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연륜'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사고 와 행동'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고샅을 걷는다. 장원봉 줄기가 공룡 등뼈처럼 쭉쭉 뻗어 나뉜 고샅, 퇴근길, 두암동이다. 1동 2동 3동으로 나뉜 두암동 고샅. 눈으로는 붓질하고 혀로 핥듯 공룡 갈비뼈 사이 두암동을 조심조심 발바닥으로 느낀다. 그러면 무등산 등줄기들이 으라차차! 기지개를 켜고

낮고 낮은 집, 높아야 겨우 2층. 대문과 지붕도 보 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본다. 감춰진 것들이 여기서는 감춰지지 않는다. 양발과 이불은 물론, 속옷들도 속살 처럼 빨랫줄에 걸려있다. 조금만 귀 기울여도 벽 너머 웃는 소리가 펄럭거린다. 길목의 꽃들이 퇴근하는 이 들을 보고 웃는다. 누구 것도 아니다. 지붕과 대문에 무 성한 꽃도 나무도 주인 것이라기보다 이웃 사람, 보는 이의 것 같다. 보기 드문 낯선 비파나무, 손바닥을 펼친 듯한 방풍나물….

그렇지! 여긴 거대한 숲이었지. 아니지! 허허벌판 사 막이나 망망대해 그 어느 심해였을 게다. 그러니 저 가 시를 드러낸 선인장이나 해풍을 먹고 자란 나무들이 옥 상에 화석처럼 있는 게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이른

주머니 속의 사랑

곳, 갑낭…. 참 이름이 생소해서 또 멈춘 곳, 두암동 갑 낭(匣囊) 경로당

주머니 속으로 들어선다. 갑낭 안은 호주머니처럼 아늑하고 따뜻하다. 몇 해 전 할아버지들은 없고, 먼저 퇴근한 네댓 명 할머니들이 정겹게 코를 박고 있다.

영감 병문안 갈 일 걱정하는 마량댁이 한숨을 쉬자, 곧 죽어도 있는 영감이 좋다며 나주댁이 전복죽이라며 보퉁이를 내민다. 그 옆에서 널배를 탔던 보성 꼬막댁 이 마늘을 까다 말고 작은 봉투를 마량댁 주머니에 쑤 셔 박는다.

"바다만 그랬가니, 우리 동네도 징글징글했지, 낮에 는 군인, 밤에서 산 손님!"

구례 연파댁도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마량댁에게 내민다.

갑낭이 무어냐고 물으니, 임금님 옥쇄주머니란다. 그러면서 자식처럼 반긴다. 뿌리까지 뽑혀 이곳에 뿌 리를 내린 사람들, 제 몸뚱이만 이식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옮겨심었다. 뿌리를 쪼개는 나눔은 나 눔으로 더 커지는 일이다. 어쩌면 고추, 상추, 호박 모 종을 나누고 생강, 담배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삶과 죽 음도 나눈 사람들이다.

생의 묵직한 가지들을 다 나누어 주고 헐렁해진 사람 들. 부모에게 간과 쓸개를 내어주고 커가는 자식들에 게 심장을 주고 이웃에게 피도 나눠주고 결국 버려진 소라껍데기처럼 텅텅 빈 주머니, 쪼글쪼글 허름한 몸 만 남은 이들이다. 굽은 허리와 절뚝거리는 다리, 침침 한 눈과 들리지 않은 귀….

"그래 맞아, 갑낭이 천국이여! 여기 아니면 갈 곳은 딱 한 군데여?"

"먼저들 가, 나는 더 놀다 제일 늦게 갈 거니까!" "아니지, 언니가 먼저 가야지"

말에 따뜻함이 가득하다. 당기고 밀치며 웃는 미소 가 영락없는 소녀다. 갑낭, 여기 올 수 없으면 요양원뿐 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갑낭에 막걸리 두 병 넣고 빠져나온다. 두암2동, 고 샅에 핀 꽃들이 흔들거린다. 길도 나뉘고 집들도 나뉘 고 그런데 사람만은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옥상 방풍나물, 흔한 게 아니다. 누가 섬마 을에서 고향을 나눠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 무개가 자고 나니 풍기가 있다고 해서 얼른 옥상에 올 라가 방풍을 둘로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방풍은 넷 으로 여덟으로 이 집 저 집, 바람 따라 나뉘었을 것이

어쩜 저 비파나무도, 노랑 장미도, 그렇게 쪼개지고 나뉘었는지 모른다. 온기는 그렇게 고샅과 고샅 사이 를 나누어도 옮겨간다. 두암동에서 사랑은 아무리 나 눠도 작아지지 않는 나누기다.

퇴근길 고샅에서 운 좋게 옛날을 만난다. 생의 보검 같은 온기와 나눔, 그 옛것들이 있는 곳이다.

깊숙이 보검을 감춘 곳이라는 갑낭, 1대 노인회장이 작명했다는 갑낭, 아니 임금의 옥쇄주머니는 그냥 주 머니가 아니었다. 마음과 마음을 꽁꽁 동여맨 옥쇄, 그 토록 찾고자 했던 것들이 주머니 속에 있었다. 갑낭 속 옥쇄가 바로 그것 아닐까.

지방소멸 위기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다



고

기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지역 은 113개 시군구로 전체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하 고 광주도 예외일 수 없다.

인구의 순유출이 심화되면서 140만명이 무너진 광 주, 지금부터라도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는 한때 호남권의 경제적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산업구 조의 고도화는 더뎠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 청년 층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났고, 고령화는 전국 평 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전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광주가 지방 소멸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 기반 붕괴로 청년층과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결국 생활 인프라 가 무너져 인구 이탈을 촉진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인 구감소는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불 평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 적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 고하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분명하다. 산업경쟁력 강 화다. 일본이 저성장·인구감소기에 '산업경쟁력강화 법'을 제정해 '투자 위축·과잉 규제·과당 경쟁'의 구조 적 문제를 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광주도 중앙정부에 산 업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요구하면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째,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광주는 AI 집적단지,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에서 전국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와 지방투자금융 플랫폼을 구 축해 기업 투자를 지역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

둘째, 규제 혁신이 필수다. 광주는 이미 규제자유특 구로 지정된 바 있지만 규제가 풀려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 처럼 애매한 규제는 신속하게 명확히 하고 기업이 실험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

셋째, 산업 재편과 클러스터화가 시급하다. 광주는 AX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 간 협력·합병· 스핀오프를 촉진해 경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지자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원자에 머물러서는 안된 다. 산업 생태계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광주·전 남 초광역 협력을 통한 글로벌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성장산업의 전략적 분업과 연 계가 필요하다. 광주는 AI 집적단지, 미래차, 문화콘 텐츠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전남은 에 너지 신산업, 첨단소재, 농생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 낸다. 이를 단순한 지역 특화로 끝내지 않고 산업 간 연 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전남의 에너지 인프 라와 광주의 AI 기술이 결합하면 '스마트 에너지 산 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전략이 필 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양적 팽 창에 기대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대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문화·관광 융합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 인구 감소 속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집중 육성 해야 한다.

2015년 수도권의 GRDP 역전 이후 수도권 편중 현상 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경제와 인구 모두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산업경쟁력 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 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선택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 짓게 될 것이다.

광주가 다시 호남권의 성장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지금이야말로 산업구조 혁신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에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기반의 인프 라 확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등 정치·경제·사회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

社說

무분별 건설에 제동 건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린 것은 무분별한 국가사업에 대한 제동 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지난11일국민소송인 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입지 선정 과 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 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 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환경파괴 영향 을 축소하거나 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 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 마련이 가능 하다는 전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

이번 판결은 정치적 필요와 지역 요구 에 밀려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지방 공항 건설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부 산 가덕도신공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 다. 으로 보인다.

새만금공항은 처음부터 정치논리로 추 진됐다. 잼버리대회 유치 명분을 내세운 전북도의 요청에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 성조사를 면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

지만 2023년 대회가 끝난뒤에도 착공하 지 못했다. 공항 건설에 8077억원이 투입 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은 0.47로 투입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 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다. 국 토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조류 충 돌 가능성을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 회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조류 충돌사고로 179명이 숨진 무안공항(0.07회)보다 최 대 656배나 높은 수치다.

새만금공항은 무안공항과 군산공항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돼 당초부터 말이 많 았다. 군산공항과의 거리가 1.3km에 불 과하고 호남권 서해안에만 3개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과연 어디서 수요를 창출해 상생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무분별하게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냉정하 게 재점검 하길 바란다.

6년만의 전남 적조 마지막까지 만전 기해야

전남에서 6년 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해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 여수 돌산읍 양식어가 4곳에서 적조로 인해 참 돔, 돌돔, 숭어, 농어 등 10만 6500마리가 폐사했다. 폐사한 어류 대다수가 길이 30 cm 안팎의 성어로 피해액은 3억원에 이른 다고 한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 은 2019년이후 6년 만으로 여수와 고흥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9일부터 황토를 살포하고 산소공급기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섰는데도 피해 를 막지 못해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까지 적조주의보 가 확대 발령되고 완도 등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는 예비 특보가 내려져 방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적조 피해가 더 커 질 가능성도 있다.

적조를 일으키는 코클로디니움은 바다 적조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온이 섭씨 22~27도 일때 가장 활발하 게 생장하는 만큼 당분간 자연 소멸 가능 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전남도와 지자체 등 방제당국과 어민들이 협력체계 를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조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 어가에선 적조 피해가 우려되자 양식 어류를 방류해 피해를 막았는데 보 상에 대한 우려 탓에 망설이는 어가가 있 는 만큼 방류시 보상 방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사천 등 경남에선 최근 적조로 양식 어 류가 폐사하면서 활어 도매 가격 인상을 초래해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 까지 끊기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석유화학 업종의 불황으 로 여수 상권이 최악인데 적조 피해가 골 목 상권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無等鼓

'문학들' 20주년

문학 중심의 정기간행물을 일컬어 문예 지라 한다. 문학 저널, 리틀 매거진으로도 불리며 예술적 글을 싣는 것이 주 목적이 다. 일반적으로 최초 문예지는 1684년 프 랑스에서 피에르 벨이 발간한 '누벨 드 라 레퓌블리크 데 레트르'로 알려져 있다. 이 후 문예지는 점차 보편화됐는데 서구에서 대중화한 시기는 책과 잡지 출간이 급증 하던 19세기 초반이었다.

문학이 주가 되는 특성상 문예지에는 단편소설을 비롯해 시, 수필, 평론, 서평, 작가 인터뷰 등이 게재

된다. 물론 추구하는 가 치나 관점에 따라 특집 이나 기획 관련 글이 수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록되기도하며 요즘에는 개성적인 신변잡 기 글들을 매개로 타 잡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한다.

최근 광주에서 발간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강산 이 두 번 변할 만큼의 오랜 시간을 '돈이 되지 않는' 문예지를 붙들고 문학 외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박수받을 만 하다. 문학이 좋아 문예지를 발간한다 하 지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 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기란 쉽지 않다.

창간 당시만 해도 '문학들'에 대한 반응 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지역에서 그것 도 순수 문예지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독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학들'은 우직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고, 참신한 기 획들을 꾸준히 선보였다. 작가들의 에세 이인 '사물들' '장소들'이라는 지면을 비 롯해 광주전남의 문학사 '문학사들'은 독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역 문학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오월 문학'에 대한 탐색과 조명은 '문학들'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 획이었다.

모든 분야가 블랙홀처 럼 중앙 집중화되는 시

대에 문예지도 예외는 아니다. 깃발을 드 는 건 쉽지만 중단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 아가기란 쉽지 않다. 송광룡 대표는 "'문 학들'이 2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문예 지를 발간해올 수 있었던 비결은 태생부 터 공적인 뜻이 강했기 때문이다"고 술회

앞으로 20년 그리고 50년을 향해 '문학 들'이 광주 문학을 풍성하게 일구고 싹을 틔워주는 '들판'이 돼주길 기대한다.

/ 박성천 문화부장skypark@

서 울 지 사 02-773-9331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 X 222-0195)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디 자 인 실 220-0536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